

단위주거 내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패턴에 대응하는 공간조절 요소

Space Elements as the Correspondent Elements with the Social Behavior Patterns in the Housing Unit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전임강사 전 남 일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Human Ecology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Fulltime lecturer : Nam-II Jun

◀ 목 차 ▶

I. 서론	III. 결론
II. 본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aim of this interdisciplinary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behavior patterns and space elements, specially micro-housing sociological point of view. It analyzed korean typical floorplans in the apartment housing, focused on the 4-criteria -contact or isolation between the individual persons, communication between the generations, hierarchy of the gender and socialization with neighbourhood. It determinate concrete space elements involved correspondent factors with users' social behavior. By reviewing those factors found, it is suggested also the planning concept, that response users' social orientation. As the practical alternatives, some prototypes have been developed not only for improvement of housing plans, but also for resonable housing supply and sustainable usage.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행위패턴(social behavior patterns), 교류 및 접촉(contact or isolation), 세대 간 교류(communication between the generations), 성별 위계(hierarchy of the gender), 사회화 계획개념(socialization planning concep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집합주택 내의 단위공간(Unit)은 인간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장소이다. 그러나 주택의 대량 공급과 공업화 생산이라는 명제 하에 단위주거는 획일적인 반복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지면서 그 중요성에 비하여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거건축은 지난 수

십 년간 이러한 기능주의적 원칙 하에 발달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주거건축의 패러다임이 대두되는 최근에도 한국의 주거건축은 주택의 대량공급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동시에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갖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과제를 어느 정도 절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중에서 사회적 행위 패턴에의 대응이라는 요구에 주목하여, 이를 공간조절 요소로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구성해 주는 가능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단위주거 내에서 거주원간의 상호 사회적 교류 및 차단의 적절한 조절, 그리고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적절한 균형을 주거공간 계획의 중심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범주를 포함한다.

첫째, 최근 주목받는 독일의 주거연구 경향인 주거에 대한 주거사회학적 관심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사회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 및 후일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 배경을 삼도록 하였다.

둘째, 단위주거 내 형성되는 사회적 행위 패턴들을 1) 개별 거주자들간의 교류, 2) 세대간의 접촉, 3) 여성의 지위, 4) 외부사회와의 관계 등의 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 도시주거의 대표적 유형인 아파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8개의 단위주거 평면형을 선정한 후, 이들을 상기한 4개의 사회적 행위패턴 유형별로 내부공간의 동선 및 시각적 접촉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 평면형에서의 접촉, 교류, 방해, 과시, 고립, 단절 등의 사회적 행위의 조절 정도를 추정한 후 이들 행위를 통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거주자

의 단위주거 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요소들의 리스트를 각 사회적 행위패턴 유형별로 작성하고, 공간 Scheme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거주자의 다양한 사회적 속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단위주거 평면의 계획에 이러한 공간 구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개념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이론적 고찰

1) 독일과 한국의 주거사회학 발달과정

주거, 특히 집합주거에 대한 연구는 항상 그 시대의 주도적인 주거건축 이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및 1930년대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을 때 독일에서의 주거연구는 주로 주거의 양적 공급을 염두에 둔 최소 주거기준, 거주자 밀도와 공간의 적정규모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이러한 정량적 측면에 중점을 둔 주거 연구에 비하여, 1960년대부터는 거주자 요구의 만족이라는 목표 하에, 사용자 태도, 공간구획 및 설비 등에 더욱 관심을 둔 개선된 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는 특정 거주자 집단의 요구를 측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개념과 불특정 다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집합주택 개념간의 상반성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갖게 되었다. 70년대 이후의 주거연구는 집합주택의 다기능성과 융통성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주거건축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다양한 평면 개념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80대 이후 주거건축의 패러다임과 주거연구는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그 중 90년대에 대두된 사회학적 개념과 접목된 주거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으로 각광을 받게되었다. 여기서는 주거라는 것을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이라 정의하고, 거주원간의 사회적 관계 및 행위 패턴에 더욱 주목한다. 특히 미시적 관점에서의 주거 내적(wohnungsintern)사

회화는 단위주거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이룬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한다.

이러한 개념의 출발은 60년대 독일 사회학자인 Silbermann(1963)과 Schmidt- Relenberg (1969) 등의 연구로서, 이는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과 공간의 특성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사회학적 고찰의 내용을 실질적인 주거공간의 계획에 적용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고, 따라서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90년대 후반 등장한 Haeusserman과 Siebel(1998)의 주거사회학(Soziologie des Wohnens)¹⁾은 과거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를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주거라는 것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주거가 항상 유동성을 갖고 변화한다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주거상황과 거주원의 행위 패턴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한국에서의 주거연구는 아직까지 거주자 요구의 정량적 분석과 문제해결에 대한 관념적 대안제시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60-70년대 경우에서와 같이 현실적 대안모색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거주자 집단의 주거이동 문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집합주택의 공급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의 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주거사회학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홍형옥(1994)의 연구에서 미시적 주거사회학적 시각을 갖고 주거행동 및 주거조절에 대하여 연구한 예를 볼 수 있으며, 최재필(1996)은 공간구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주생활양식과 주거공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주거사회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된 예이나, 앞으로 계속되는 연구에서 그 시각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은 계속 존재한다 할 수 있겠다.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주거건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서구와의 격차를 줄이고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사회학의 입장에서 한

국주거를 파악하고 발전적 대안을 위하여 하나의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연구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미시적 주거사회학의 입장에서 본 단위 주거내 부공간의 구성 -공적,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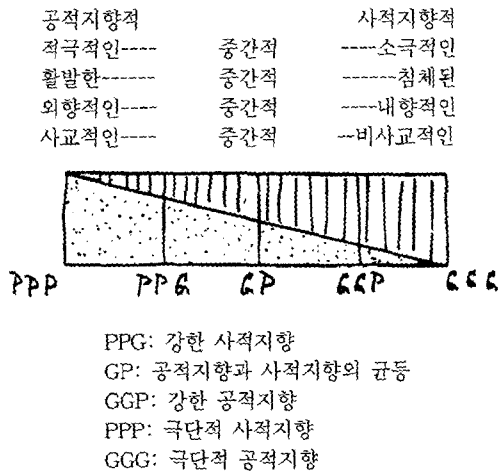
주거사회학에서 다루는 범주는 거시적으로는 거주자 집단,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미시적으로는 단지 및 단위주거이다. 이때 단위주거 내의 거주자는 가족인 경우를 비롯하여 특수 거주자집단의 경우도 포함한다. 이들 거주자들은 독신가구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이루며, 어느 정도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공동의 주거목표를 갖게된다. 미시적 주거사회학의 연구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간의 동화(Identifizierung) 및 거리감 형성(Distanzbildung)에 대한 의식, 즉 공적, 사적 관계 및 이에 따른 행위 패턴이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거주자집단, 그리고 거주자집단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ilberman(1963)²⁾은 인간이 다른 인간, 또는 다른 집단을 이루는 개체와 그 상황에 통합될 때 상호 사회적 과정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집단 내부의 개인간의, 개인과 집단과의, 또는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생활의 불가피한 과정이며,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교류(Kommunikation), 사회화(Sozialisation), 분리(Separation)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

- 교류: 마주침, 대화, 갈등, 방해, 이해 등으로 나타나는 양방향 접촉의 행위
- 사회화: 훈육, 습득, 일치, 과시 등으로 나타나는 한 방향 동화 및 영향의 행위
- 분리: 격리, 차단, 소외, 거리감 등으로 나타나는

1) Haeusserman, Hartmut & Siebel, Walter(1996), Soziologie des Wohnens, Muenchen

2) Silberman, Alfons(1963), Vom Wohnen der Deutschen, Koeln



〈그림 1〉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 보완 및 대립관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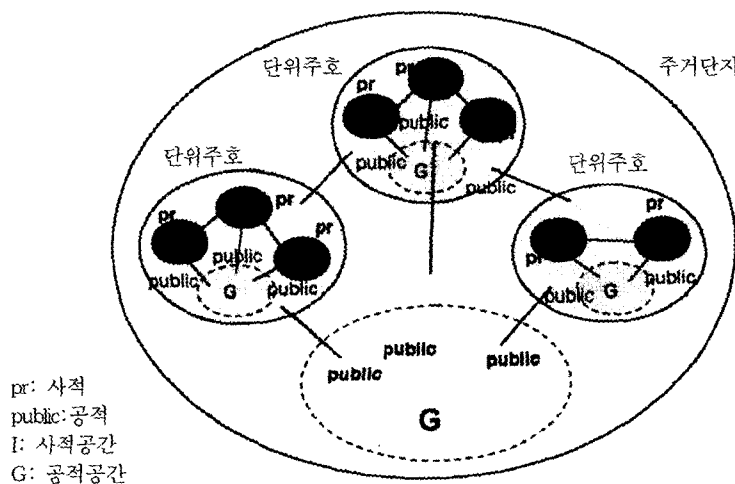
양방향 접촉거부의 행위

여기서 특히 교류와 분리는 상호 보완되는 행위면서 동시에 상호 대비되는 관계를 갖는다. (Grandjean, 1979)³⁾ 공동체적 행위인 교류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개인적이고 친밀한 행위인 분리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재정의되며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주거행위가 발생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Schmidt- Relenberg(1969)는 이 두 가지의 공존

(Dualismus)을 다음 〈그림 1〉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명확히 정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거주자 집단의 속성이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양 극단적인 속성 중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 치우치는가 하는 정도, 그리고 이 속성의 변화 가능성이다.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은 형용사들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거주자 속성은 가족 및 거주자 구조, 그리고 그 규모와 함께 거주자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하나의 주거단위에서 내적, 외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위주거는 전체 단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의 단위주거 내에서도 각 개실은 다른 공간에 대하여 사적 영역을 형성한다. 또한 단지의 차원에서 광장, 가로 등은 단위주거에 대하여 공적 영역을 형성하고, 하나의 단위주거 내에서는 거실, 식사공간 등이 각 개실에 대하여 공적 영역을 형성한다. 즉 사적인

3) Grandjean, Etienne, 1976: Wohnen im Neubau, Bern, p.105. Grandjean은 이러한 주거 내부에서의 행위를 첫째, 사교적 행위(방문, 아동과의 놀이, 카드놀이 등), 둘째, 적극적 행위(공작, 취미행위, 교육), 셋째, 재생산 행위(휴식, TV보기, 음악듣기, 독서)로 다시 분류하였다.
 4) 출처: N. Schmidt-Relenberg(1963), Soziologie und Staedtebau



〈그림 2〉 주거공간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관계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데, 첫째, 공적인 것에 대한 가족, 또는 거주자 집단의 집단적인 사적인 것, 둘째, 가족 및 거주자집단 내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적인 것이 그것이다.(Bott, Helmut & Haas, Volker von, 1996)⁵⁾ 이 관계는 공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하나의 주거단지 내에서 단위주거와 이를 둘러싼 영역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어떠한 관계로 중복되어 구성되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주거 내부공간에서 거주자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 성향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간적 성격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으로 공간적 성격은 거주자의 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조합 및 조절 정도로 결정된다는 것이 주거사회학의 입장이다.

3) 단위주거 내부공간에서의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 패턴

거주자 집단의 구성은 크게 가족이라는 혈연관계에 의한 강제적 결속집단과 주거공동체라는 비혈연관계에 의한 자율적 구성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거주자 집단은 곧 전형적인 핵가족, 또는 확대가족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더욱 다양한 유형의 거주자집단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 거주자 집단의 사회적 상호관계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대내적, 대외적인 사회적 행위 패턴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이는 원칙적으로 주거공간 내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1) 개별 거주원 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

주거공간이 그 구성과 형상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거주자의 상호 관계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의 주거공간은 그 구성을 통하여 거주자간의 교류 및 접촉, 분리 등의 사회적 행위를 유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 각 거주원 간의 요구상태가 다를 경우에는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갈등의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

오늘날 가장이나 장성한 자녀의 휴식을 위한 분리와 차단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 비하여 증대되는 현상 등은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 공적 및 사적 관계의 예이다. 주거공간으로 인한 갈등의 예는 특히 사회 변혁의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와 같이 과거 전통적인 공동체지향적인 성향과 현대 주생활의 사적공간화 및 개인공간화되는 경향과의 갈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때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3) 여성의 지위

한국의 경우 아동과 여성들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이 가부장적으로 형성되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아동에 대한 배려가 증대된 오늘날에는 주거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패턴,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의 구성, 그리고 특정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 아동과 여성의 주거 내부에서의 사회적 접촉은 과거에 비하여 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매우 권위적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이러한 대외적 교류는 성인들만의 일, 경우에 따라 남성들만의 일이며, 반대의 경우는 아동과 여성에게도 동시에 해당되는 일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대외적 체면을 위하여 응접공간이 벽체나 복도공간으로 부엌 및 아동실과 격리되는 것이 적합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방되어도 무방한 것이 되는 것이다.

(4) 외부와의 사교적 접촉

외부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행위패턴 역시 하나의 거주자집단이 외부와 어느 정도 교류를 원하며, 어느 정도 방해에 대하여 관용적인지 등에 좌우되며, 이는 소위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적 차이로부터 많

5) Bott, Helmut, von Haas, Volker(1996), Verdichteter Wohnungsbau, Stuttgart

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 Klotz et al(1991)는 하나의 단위주거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연계점, 또는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결절점이라고 정의하였다.⁶⁾

주거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손님초대, 이웃방문시의 응접, 음식대접, 담소 등인데, 이는 주거공간의 대사회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제3자에 대한 자기과시, 자기표현, 그리고 개성과 인간성의 표현⁷⁾ 기능이다. Schmidt-Relenberg(1969)는 자기과시를 신분의 형상화, 신분계층에의 소속, 사회적 지위의 표현, 상위 지위와 신분에의 지향이라 정의하였다.

2. 단위주거 평면별 사회적 행위패턴의 분석

1) 한국 주거공간에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

본 분석에서는 우선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위에서 고찰한 4가지 사회적 행위패턴에 따라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분류된 4가지 사회적 행위패턴과 관계된 공간적 특성을 나열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공간간의 상호 연계 여부 및 인접관계이다. 이는 공간간의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접촉 및 프라이버시를 통제하는 주 요인이다⁸⁾. 이들 지표를 공간의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리스트화 하였다.

2) 한국 공동주택의 내부공간 사례분석

(1) 대표적 아파트 평면의 선정

한국 주거공간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주거의 대표적 유형인 아파트 중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입주된 120개 단지의 87,289 세대의 평면을 수집하여 규모별, 평면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8개의 단위주거 평면형을 선정하였으며 그 분포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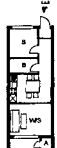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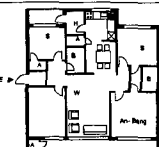
한국에 공동주택이 최초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많은 다양한 평면형이 적용되었으나 한국적 요구와의 절충과정을 거쳐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전형적인 평면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 평면들은 현재 공동주택 평면의 원형이 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널리 분포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고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평면들은 규모별로 한국 공동주택 평면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황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6) Klotz, Arnold & Fischmann, Lothar(1991), Zeitschrift Perspektiven, Vol.5, p.14
- 7) Lettau, Juergen & Riedel, Uwe(1988), Deutsche Bauzeitung, Vol.2, p.10
- 8) Barbey, Gilles(1984), Wohnhaft-Essay ueber die innere Geschichte der Massenwphnung, braunschweig/Wiesbaden, p.78

<표 1> 각 평가지표에 따른 구체적 공간구성 사례

평가지표 A	개별 거주원 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가족, 혹은 거주구성원간의 관계)	- 거실은 각 개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 - 식사공간은 각 개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 - 거실은 식사공간과 어떻게 연계되어있는가?
평가지표 B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세대차와 가부장적 관계)	- 아동실은 거실, 혹은 부부침실로부터 얼마나 격리되어있는가? - 아동실은 거실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평가지표 C	여성의 지위(성별간 관계)	- 주부는 가사노동 중 아동실과 접촉이 가능한가? - 부엌은 식사공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평가지표 D	외부와의 사교적접촉(외부관계)	- 거실은 분리되었는가? - 통로공간은 명확하게 구획되어있는가? - 아동실과 환관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가, 먼 위치에 있는가? - 부엌의 시각적 무질서와 냄새는 차단이 되는가?

<표 2> 한국 공동주택의 대표적 평면유형

유형	조사대상 주택의 규모별 분포*	가장 많이 나타난 단위 주호 유형	빈도수	가장 많이 나타난 단위주호 유형이 *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1	방 1개 규모: 6,500		2,305	35.5
2	방 2개 규모: 17,290		13,644	78.9
3	방 3개 규모: 39,096		10,317	26.4
4			5,829	14.9
5			7,270	18.6
6			2,513	6.43
7	방 4개 규모: 18,683		3,204	17.1
8			6,500	34.8
계	87,289		51,582(59%)	

*가장 많이 나타난 단위주호 유형이 조사대상 규모별 분포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2) 각 평면에서의 사회적 행위 조절요소 분석

주거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주거사회학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서 일정한 사회적 행위패턴을 유발시키는 상황과 거주자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새로운 요구를 공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들 대표적 평면에서 해당되는 공간간의 연계를 위주로 4개의 평가지표 별로 내부공간의 동선 및 시각적 접촉을 교류, 사회화, 분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류는 접촉 및 마주침, 사회화는 방해 및 과시, 분리는 고립 및 단절과 같은 구체적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공간구성을 통한 이러한 사회적 행위패턴의 조절 정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3-1>~<표 3-3>과 같다. 여기서 유형4와 유형6을 비교해 보면 거실과 식사공간 사이의 벽체의 유무로 거실에서의 거주원간의 접촉 및 외부손님의 접대에 관계된 단절 또는 마주침이라는 행위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형7과 유형8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엌 및 식사공간의 연계 정도, 그리고 식사공간과 통과공간 사이의 차단 여부로 여성의 고립 또는 접촉의 정도와 손님접대시의 방해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나타난 사실은 적은 규모의 평면은 대부분 교류에 적합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식사공간, 거실 등의 공동공간은 거의 개방된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어 통과동선에 의한 자연적 접촉, 또는 방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과동선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적은 규모의 평면에서 공간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큰 규모의 평면에서는 비교적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행위패턴의 성향이 거주자별로 매우 다양하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획일적으로 주거공간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 공간구성은 거주자의 불만족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주거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거주자 집단의 사회적 속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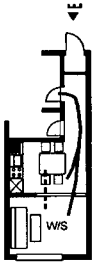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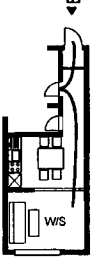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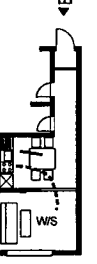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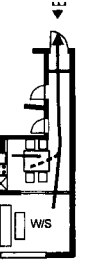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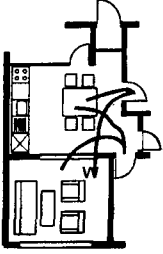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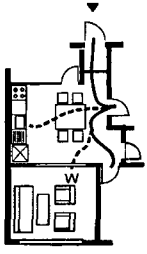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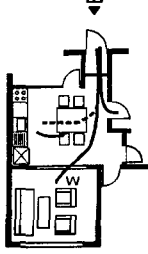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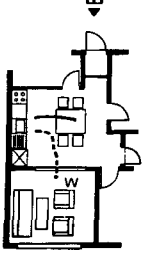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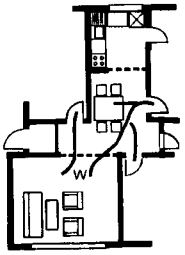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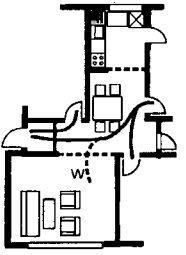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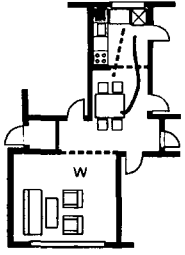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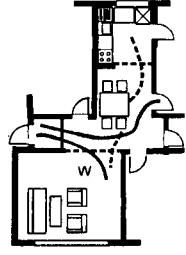
편차를 인정하고 주거라는 것을 유기체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적은 규모의 공간에 거주하는 거주원들도 경우에 따라 거주원간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3) 공간조절요소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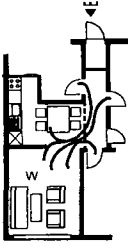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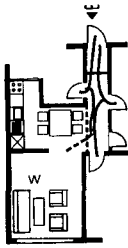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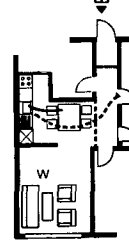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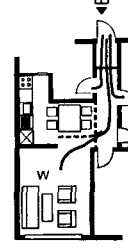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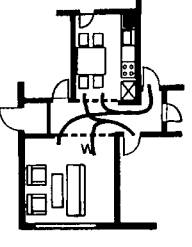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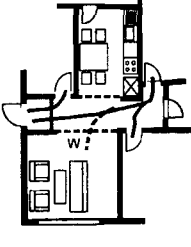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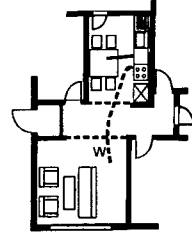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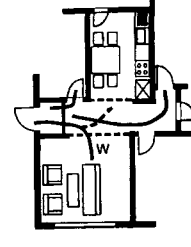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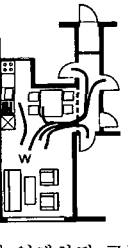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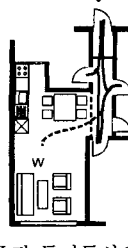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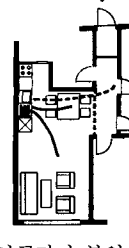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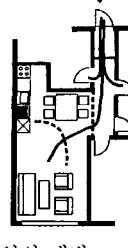
이상의 공간 조절 요소 분석 결과, 이러한 편차에 대응하고 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공간적 요소는 첫째, 공동공간 간의 공간구획 및 분화의 정도, 둘째, 공동공간들과 각 개실의 연계정도, 셋째, 각 동선들의 집합 및 분산의 정도, 즉 통로공간의 구성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각 4개의 평가지표별로 이러한 편차에 대응하는 공간을 Schmidt-Relenberg의 이론적 다이어그램에 대응시켜 가능한 공간구성의 예를 작성해 보면 <표 4>와 같다. 공간구성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조절 정도에 따라 여기서 보여지는 양 극단적 속성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 평가지표별로 상세하게 나열한 결과는 <표 5> - <표 8>에 나타나 있다. 각 리스트에서는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패턴을 '개별 거주원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의 경우 분리지향적 속성과 공동체지향적 속성,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의 경우 사생활보장적 속성과 접촉유도적 속성, '여성의 지위'의 경우 고립적 속성과 교류적 속성, '외부사회와의 사교적 접촉'의 경우 체면지향적 속성과 가족생활위주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이 양 극단적 단계 사이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한 후 각 상황에 요구되는 공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때 주거공간 내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간구성 요소는 구체적으로 거실, 식사공간, 부엌 등의 주거 내 공적 공간 상호간의 개방과 폐쇄, 그리고 각 개실과 공적 공간, 개실과 현관공간을 연결하는 통과공간의 구성여부였다. 즉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포괄적 요인은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 여부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각 공간구성 요소들을 조절하기 위한 전제는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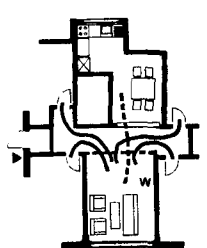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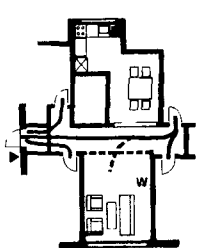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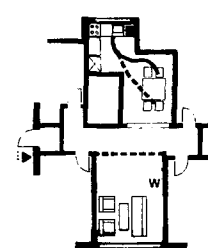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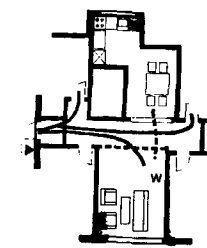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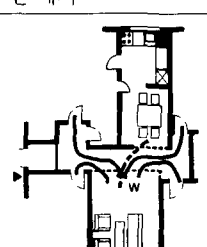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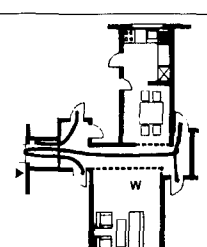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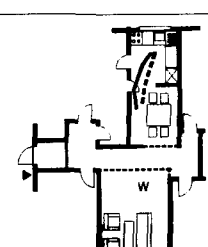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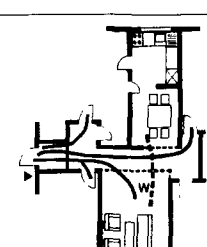
<표 3-1> 한국 공동주택의 대표적 평면유형에서의 사회적 행위조절요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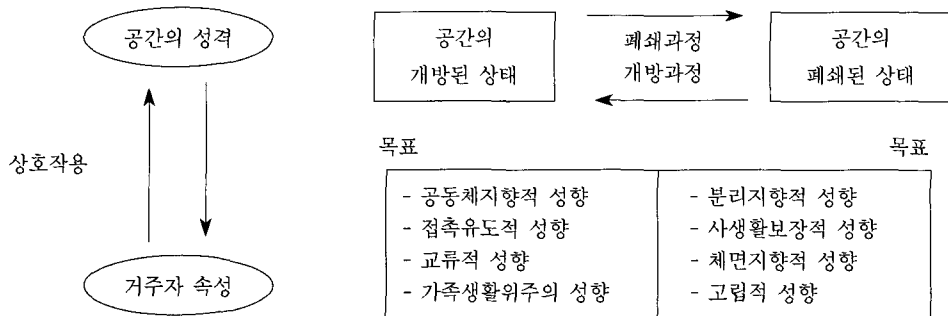
평가 지표	A: 개별 거주원 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	B: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	C: 여성의 지위	D: 외부와의 사교적 접촉
해당 공간	거실, 식사공간, 통로공간, 개실	통로공간, 개실	부엌, 식사공간, 거실, 개실	부엌, 거실, 통로공간
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이 공동공간의 역할을 함 - 분리가능한 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침실의 역할을 하는 거실이 방해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부엌에서 거실로의 시각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일상생활이 개방됨 - 아동실과 거실과의 약한 연계성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공간 기능의 집중 - 가족 공동공간으로의 식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선은 부모의 동선과 교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부엌에서 거실로의 시각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의 개방 - 부엌, 식사공간을 통과하는 동선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선의 거실로의 분화 - 거주원의 접촉을 유도하는 식사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선의 거실로의 통과로 방해요소 유발, 교류의 기회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과 식사공간의 유기적 연계 - 거실과의 거리감으로 연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정도 분리된 부엌으로 접대공간과 약간 차단 - 부엌, 식사공간을 통과하는 동선

<표 3-2> 한국 공동주택의 대표적 평면유형에서의 사회적 행위조절요소 분석

평가 지표	A: 개별 거주원 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	B: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	C: 여성의 지위	D: 외부와의 사교적 접촉
해당 공간	거실, 식사공간, 통로공간, 개실	통로공간, 개실	부엌, 식사공간, 거실, 개실	부엌, 거실, 통로공간
유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일체화된 거실, 식사공간 및 부엌 - 교류를 유도하는 공동 공간으로서의 식사공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된 통과동선으로 접촉기회 감소 - 현관과 가까운 아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부엌에서 아동실과의 접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의 개방 - 통과동선으로서의 방해는 약하나 시각적 방해 가능
유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 및 식사공간과 거실의 분리 - 각 기능의 분화로 제한된 접촉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선의 거실로의 통과로 방해요소 유발, 교류의 기회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거실과의 시각적 약화 - 아동실과의 약한 접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로부터 시각적으로 차단된 부엌 - 거실, 식사공간을 통과하나 방해하지 않는 동선
유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일체화된 공동공간 및 부엌 - 교류를 유도하는 공동 공간으로서의 식사공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된 통과동선으로 접촉기회 감소하나 시각적 연계가능 - 현관과 가까운 아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부엌에서 아동실 및 거실과의 접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의 개방 - 통과동선으로서의 방해는 약하나 시각적 방해 가능 - 거실의 독립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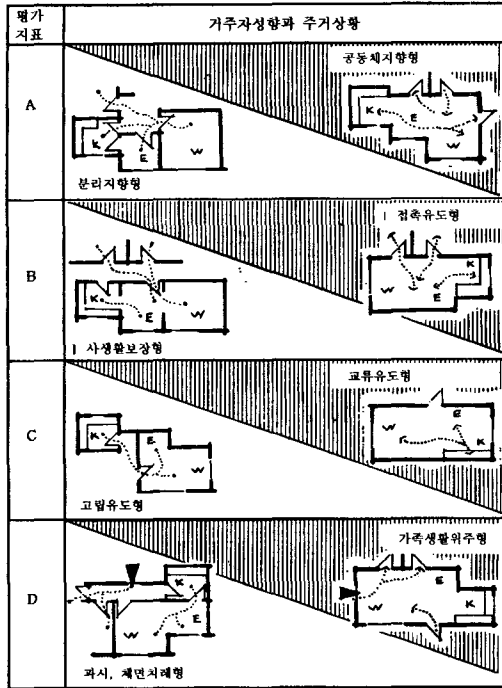
<표 3-3> 한국 공동주택의 대표적 평면유형에서의 사회적 행위조절요소 분석

평가 지표	A: 개별 거주원 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	B: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	C: 여성의 지위	D: 외부와의 사교적 접촉
해당 공간	거실, 식사공간, 통로공간, 개실	통로공간, 개실	부엌, 식사공간, 거실, 개실	부엌, 거실, 통로공간
유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일체화된 거실, 식사공간 및 부엌 - 교류를 유도하는 공동 공간으로서의 식사공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된 통과동선으로 접촉기회 감소 - 현관과 가까운 아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부엌에서 아동실과의 접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의 개방 - 통과동선으로서의 방해는 약하나 시각적 방해 가능
유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 및 식사공간과 거실의 분리 - 각 기능의 분화로 제한된 접촉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동선의 거실로의 통과로 방해요소 유발, 교류의 기회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공간과 부엌의 직접적 연계 - 거실과의 시각적 약화 - 아동실과의 약한 접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로부터 시각적으로 차단된 부엌 - 거실, 식사공간을 통과하나 방해하지 않는 동선



<그림 3> "흐환"의 개념

<표 4> 평가지표별, 거주자성향별 공간구성의 예



구성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림 3>과 같은 “호환”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호환”의 개념은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이 거주자 집단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 속성 자체도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며, 이에 따라 여기에 부응해야 하는 공간의 성격 역시 변화해야 함을 설명한다. <표 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양 극단적 거주자 속성 및 공간 구성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은 요구되는 적절한 “개방된 상태” 및 “폐쇄된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절되어야 하는 특정 공간구성요소는 초기 상태와 목표로 하는 상태 사이에서 호환성이 있는 요소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환성을 갖는 공간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림 4> -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예에서는 폐쇄된 상태에서 개방된 상태로의 변경 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5> 평가지표 A에 대한 거주자속성별 공간구성의 예

단	A: 개별 거주원간의 공동체성과 고립성 거주자 속성/공간계획 요소
분	대단히 분리지향적, 매우 내향적, 거실에서의 접촉은 매우 의도적, 각 개실에서의 머무름을 선호
리	-----
지	-- 확정적인, 분리된 복도, 또는 통과공간
향	-- 거실 및 식사공간은 복도와 완전 분리
형	-----
↑	접촉을 꺼림, 사생활 보장적, 개인 생활에 비중을 둠, 거주원간의 미약한 교류

	-- 거실과 식사공간의 분리
	-- 명확한,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통과공간
	중립적

	-- 거실, 식사공간, 부엌의 유기적 연계
	--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일부 개방적 인 통과공간
	-- 공동공간, 개별공간의 영역분리

	교류를 유도하는, 공동체생활을 선호하는, 접촉지향 적, 거주원간의 개방된 관계형성

	-- 어느 정도 개방된 거실과 통과공간에 개방된 식 사공간
	-- 거실, 식사공간, 부엌의 연계
	-- 개방된, 공동생활공간을 관통하는 통로공간

	매우 교류지향적, 공동체생활 지향적, 공동생활공간 에서의 비의도적 접촉, 거주원간의 개방되고 강한 유대관계

↓	공 동 체 지 향 형
	-- 완전 개방적이고 개실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거실 및 식사공간
	-- 통과공간으로부터 완전 개방된 공동생활공간
	-- 거실 및 식사공간의 통합
	-- 개방된, 공동생활공간을 관통하는 분산된 통로공간

- 1) 차폐벽체의 단순한 설치 또는 제거(그림 4)
 - a. 부엌 벽체: 일반적으로 부엌과 통로공 간
사이
 - b. 식사공간 벽체: 일반적으로 식사공간과 통
로공간 사이
 - c. 거실 벽체: 일반적으로 거실과 통로공간
사이
 - d. 거실과 식사공간 사이의 벽체:

<표 6> 평가지표 B에 대한 거주자속성별 공간구성의 예

단계	B: 세대간의 갈등과 교류 거주자 속성/공간계획 요소
상생활	대단히 권위적, 성인위주, 세대간 강한 사생활 보장, 소극적인 자녀의 성향
보장형	-- 확정적인, 분리된 복도, 또는 통과공간 -- 완전 분리된 거실 -- 현관과 가까운 자녀 개실
↑	접촉을 꺼림, 권위적 부모, 자녀 생활의 분리, 개인에 대한 배려가 강함, 자녀의 통제 -- 어느 정도 분리된 거실 -- 명확한,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또는 차폐가능한 통과공간 -- 현관과 가까운 자녀 개실
	중립적 -- 어느 정도 분리된 거실 --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일부 개방적인 통과공간 -- 거실과 가까운 자녀 개실
	교류를 유도하는, 세대간의 친밀하고 개방된 관계 형성, 공동생활 지향적, -- 거실과 자녀 개실의 원활한 연계 -- 개방된, 공동생활공간을 관통하는 통로공간
↓	매우 교류지향적, 자녀생활 위주, 관용적, 세대간의 강한 유대관계, 빈번한 공동 활동, -- 현관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자녀 개실 -- 거실과 자녀 개실의 매우 긴밀한 연계 -- 통과공간으로부터 완전 개방된 거실 -- 개방된, 공동생활공간을 관통하는 분산된 통로공간

<표 7> 평가지표 C에 대한 거주자속성별 공간구성의 예

단계	C: 여성의 지위 거주자 속성/공간계획 요소
고립유도형	가사노동 중 접촉차단, 매우 고립적, 가사노동만을 위한 기능적 부엌구성, 성별 역할의 분리 -- 독립된 식사공간 -- 완전 독립된 부엌 -- 부엌과 자녀 개실의 연계 없음
↑	고립적, 가사노동의 부담이 적음, 권위적 남성과 소극적 여성상 -- 식사공간과 부엌의 분리 -- 통과공간으로부터 차단된 식사공간 -- 부엌과 자녀 개실의 연계성이 적음
	중립적 -- 식사공간과 부엌의 유기적 연계 -- 거실 및 통과공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개방된 식사공간 -- 부엌과 자녀 개실의 적당한 연계
	여성을 배려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부여, 부엌에서 다른 거주원과 접촉가능, 공동공간으로서의 부엌과 식사공간 -- 고립되지 않은 식사공간 -- 식사공간과 연계된 부엌 -- 부엌과 자녀 개실의 긴밀한 연계
↓	매우 여성위주, 가사노동의 부담, 거주공간으로서의 부엌과 식사공간, 부엌과 기타공간간의 짧은 동선 -- 부엌, 식사공간, 거실의 일체화 -- 통과공간으로부터 완전 개방된 식사공간 -- 개방된 부엌

- 또는 식사공간과 부엌 사이의 벽체
- 또는 거실과 식사공간 겸 부엌 사이의 벽체
- 2) 인접 공간과의 유기적 연계(그림 5)
 - a. 거실과 식사공간 간의 부분 연계
 - b. 식사공간과 부엌간의 부분연계
 - c. 식사공간겸 부엌과 거실간의 부분연계
- 3) 인접공간과의 완전 통합(그림 6)
 - a. 거실과 식사공간의 완전 통합
 - b. 식사공간과 부엌의 완전 통합

- c. 거실겸 식사공간과 부엌의 완전 통합
- d. 거실과 식사공간겸 부엌과 완전 통합
- e. 거실, 식사공간, 부엌의 완전 통합
- 4) 출입문의 위치변경(그림 7)
 - a. 개실 출입문의 위치변경: 거실로의 출입을 복도공간으로의 출입으로
- 또는 식사공간으로의 출입을 복도공간으로의 출입으로
- 또는 부엌으로의 출입을 복도공간으로의

<표 8> 평가지표 D에 대한 거주자속성별 공간구성의 예

단 계	D: 외부사회와의 사교적 접촉 거주자 속성/공간계획 요소
과 시, 체 면	외부와 매우 사교적, 손님접대시 자녀에 의한 방해 차단, 매우 과시적이고 체면치레적, 성인위주의 접대문화
치 레 형	----- -- 명확히 분리, 차단된 통과공간 -- 완전 분리된 거실 및 식사공간 -- 완전 분리된 부엌
↑	과시적, 손님접대에 비중을 둠, 격식위주, 일상생활 과 격리된 사교행위, 가사행위의 시각적 차단 ----- -- 분리된 거실 -- 분리된 부엌 -- 명확한,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으며 차단가능한 통과공간 -- 식사공간과 거실의 인접과 연계
	중립적 ----- -- 어느 정도 분리된 부엌 -- 명확한,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일부 개방된 통과공간, 또는 구분가능한 통과공간 -- 약간 개방된 거실 -- 식사공간과 거실의 유기적 연계
↓ 가 족 생 활 위 주 형	가족생활 위주, 어느 정도 개방된 일상생활, 손님 과의 친밀한 관계, 비권위적 ----- -- 식사공간과 연계된 부엌 -- 부엌과 식사공간의 일치 -- 명확한, 거실 및 식사공간을 관통하지 않는, 개방된 통과공간, 또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통과공간 -- 차단되지 않은 거실
	매우 가족생활위주, 방해에 관용적, 자녀생활과 성인 생활의 구별이 약함, 비과시적, 개방된 일상생활, 체면치레를 중요시하지 않음 ----- -- 구별되지 않는 통과공간 -- 통과공간으로부터 완전 개방된 거실 -- 개방된 부엌

출입으로

- 또는 거실겸 식사공간으로의 출입을 복
도공간으로의 출입으로

- 또는 식사공간겸 부엌으로의 출입을 복
도공간으로의 출입으로

5) 기타 변경(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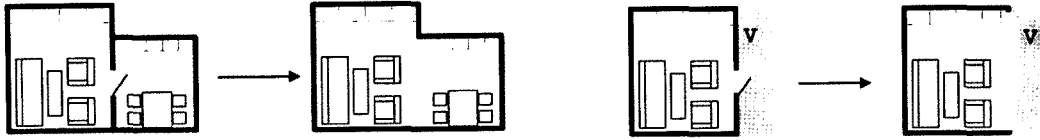
- a. 복도공간으로의 출입문 위치변경
- b. 식탁의 위치변화

3. “흐름”의 개념을 적용한 주거 단위평면의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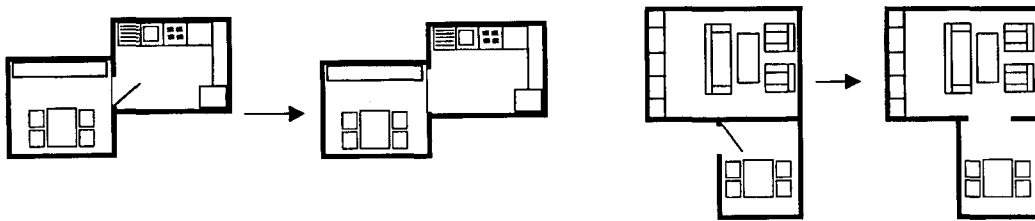
1) 주거 단위평면 계획의 방향

주거계획에 있어서는 주거공간이 거주자의 요구
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필연적 과제와 합리적
인 주거공급이라는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거공간은
공업화건축과 대량공급이라는 명제 하에 획일적으
로 계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여러모로 제
기되어왔다. 주거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거주
자의 사회적 속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계획을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
사이다. 주거의 공급을 고려할 때 가능한 두 극단적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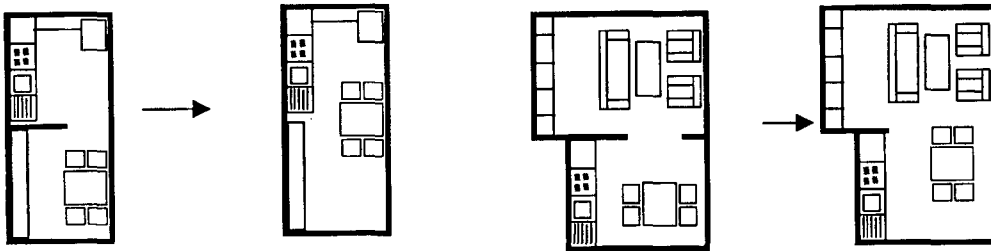
- 평면구성은 확정하되 매우 다양한 여러 타입의
단위주거를 시장에 제공하여 거주자의 선택의 폭
을 넓힘
 - 비교적 적은 타입의 단위주거를 시장에 제공하나,
오픈된 평면구성으로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
로운 구성,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매우 상반된 논쟁을 불
러일으켰으나, 최근의 경향은 대체로 이들 두 극단
적 방법 사이에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단위주거 내부의 공간계획은 완전 개방된 평면
계획과 완전 고정적이고 확정된 평면계획과의 절충
을 꾀하는 것이다. 이 절충의 개념 중 지난 수 십
년간 많이 시도되었던 것이 “용통형 평면”이지만,
이는 공동주택에서 구조적 부담과 비경제성이라는
현실적 문제점을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입
장은 E. Hubeli(1997)의 “용통형 주택의 벽체를 제거
하거나 다시 설치하기보다 거주자는 차라리 이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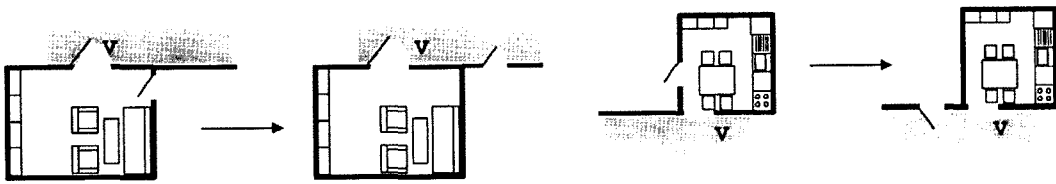
<그림 4> 차단벽체 제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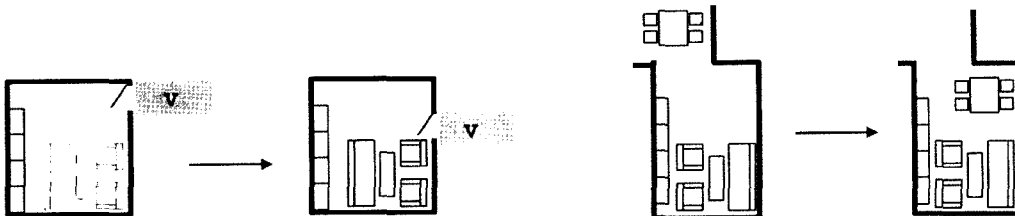
<그림 5> 인접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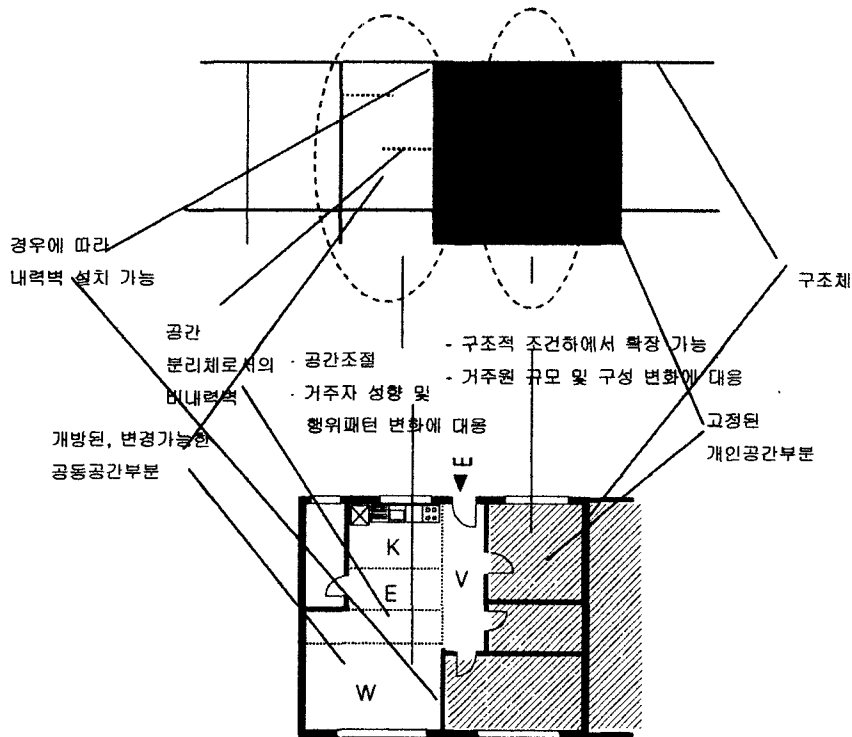
<그림 6> 인접공간과의 완전 통합의 예



<그림 7> 출입문 위치변경의 예



<그림 8> 기타 변경요소의 예



<그림 9> 부분적 오픈플랜의 계획개념도

선호한다”⁹⁾는 비판으로 대변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거주자의 성향을 반영하고 융통형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환”의 개념을 적용한 부분적 오픈플랜의 도입을 제안한다.

2)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에 대응하는 계획개념

이 개념의 주요 원칙은 고정된 부분과 구성이 자유로운 부분의 분리이다. 즉 평면설계 과정에서 구조적 요소와 공간구획 요소를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고정된 부분을 개인공간 및 서비스공간으로, 융통성 있는 오픈플랜 부분을 공적공간으로 구성해 줌으로써 거주자 속성과 공간의 성격이 적절히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분리된 이 두 영역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부분과 거주자가 자유로이 적응의 과정으로 조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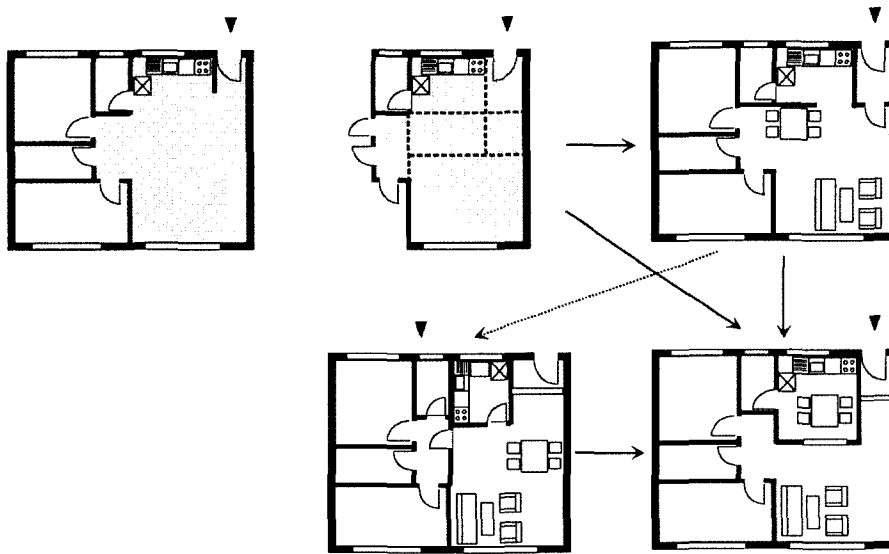
부분으로 구획되어, 경제적인 코디네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오픈플랜이 적용되는 공적공간은 각 사회적 행위패턴에 대응하는 공간조절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거실, 식사공간, 부엌, 통로(또는 복도)공간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고정된 부분에는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 그리고 개방, 폐쇄가 불가능한 욕실과 같은 위생공간이 포함된다.

이 개념에서 특히 의도하는 것은 복도공간을 포함한 공적 공간에 개방과 폐쇄의 조절 여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융통형 평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벽체의 조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거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거나, 전문가가 시공하더라도 소규모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성과 수월함이 보장되어야 그 실효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의

9) Hubeli, Ernst(1997), Werk, Bauen und Wohnen, Vol.6.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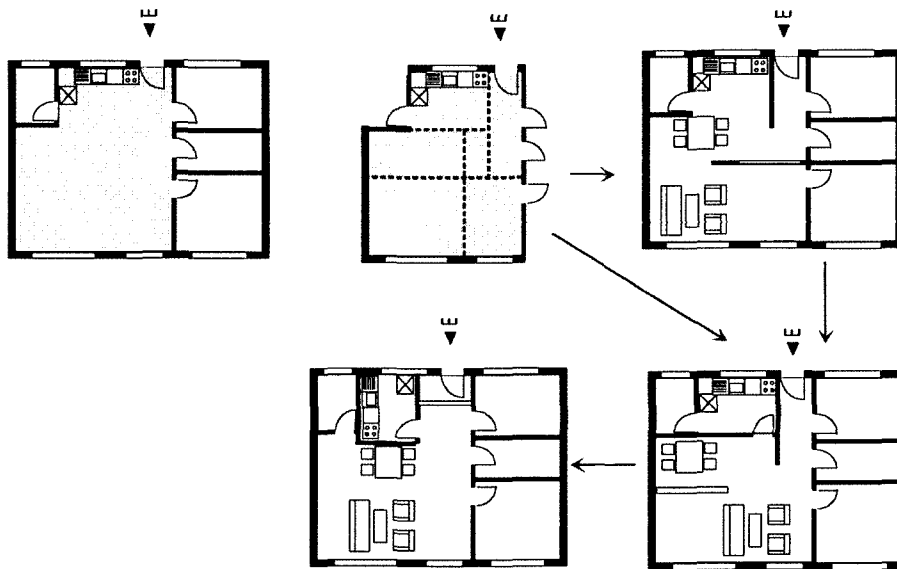
1단계 프로토타입	2단계 옵션	3단계 조절의 예
--------------	-----------	--------------

복도형 6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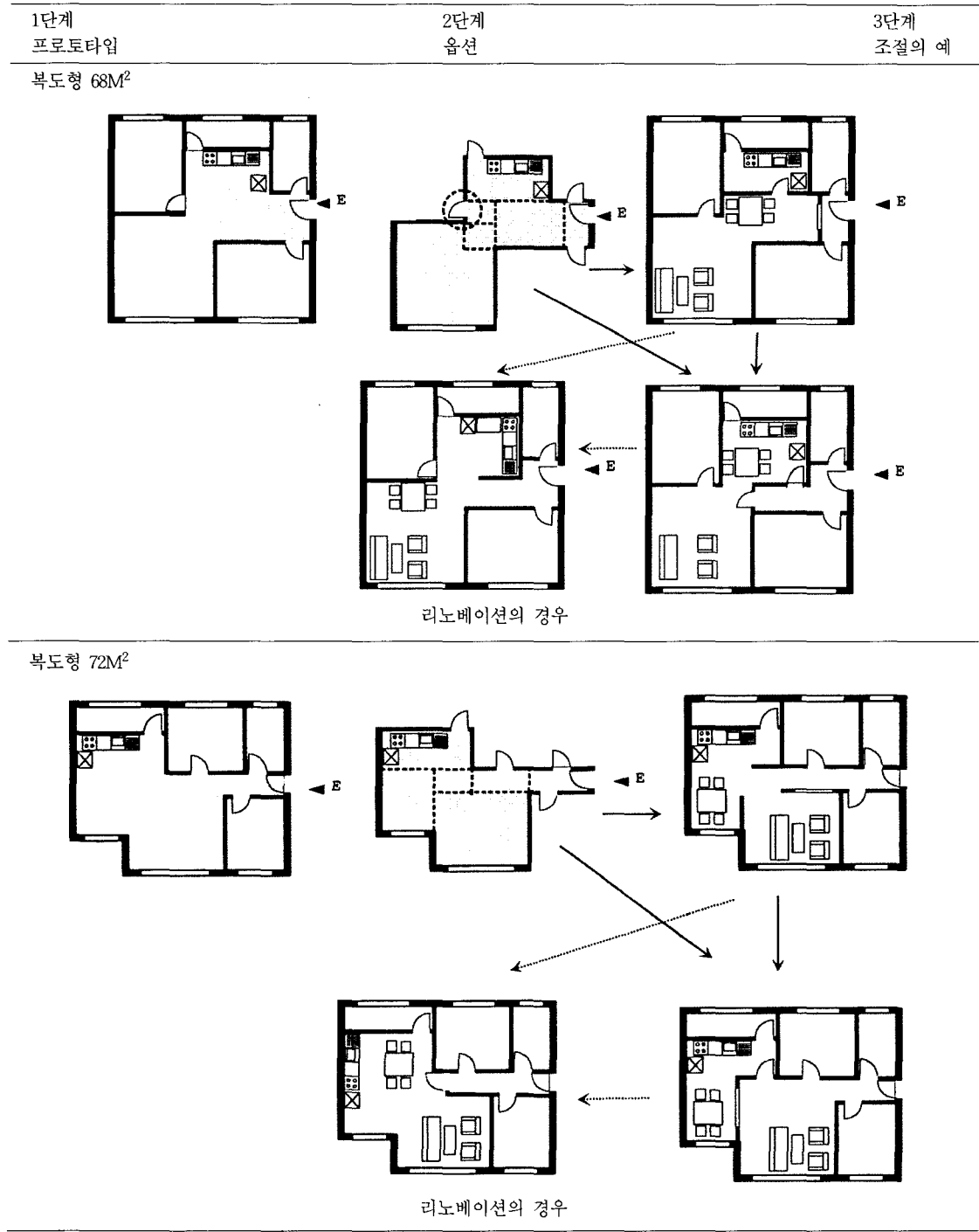
리노베이션의 경우

복도형 72M²



리노베이션의 경우

<그림 10> 복도형 프로토타입의 예



<그림 11> 계단실형 프로토타입의 예

벽체는 기밀성 및 청각적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요구 때문에 융통성 있는 벽체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공동공간의 경우, 예를 들어 거실과 식사공간 사이의 벽체, 식사공간과 복도공간의 사이의 벽체 등은 청각적 프라이버시나 기밀성이 개인 침실의 경우만큼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공간에서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조절은 다양한 단순 차단벽체의 이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는 개방된 상태와 폐쇄된 상태 상호간에 “호환”의 개념으로 공간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 외에 정량적 요소의 변화, 즉 구성원, 또는 구성원 규모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조적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정공간과 이동한 고정공간 간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평면계획이 기존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야 하는 점은 첫째, 공적 공간은 융통성 있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히 폐쇄적인 공간의 상태에서도 각 공간에 적절한 면적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통상적인 면적 이상으로 적절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경우에 따라 통로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평면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프로토타입의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평면 프로토타입을 2침실 규모 단위주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조절 가능한 공간조절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예, 그리고 이 경우의 적정 면적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 후 리노베이션의 경우, 즉 싱크대의 위치까지도 변경할 정도의 대규모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안되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는 개발된 프로토타입 중 기존의 복도형과 계단실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예를 보여준다. 평면의 1단계는 부분적 오픈플랜의 프로토타입, 2단계는 옵션, 즉 차단벽체의 설치 및 제거 등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점선부분), 3단계는 거주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조절하여 적응시킨 평면의 예를 보

여준다. 평면에서 어둡게 표시된 부분이 오픈플랜으로서의 공적공간을 나타낸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중 사회적 행위 패턴에 좌우되는 거주자의 속성과 공간적 요소가 상호 인과관계를 이루는 점에 주목하여 집합주택이 갖는 보편적 목적인 공급의 문제와 거주자의 요구 충족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 범주 내에서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를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항상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시각으로 파악하는 주거사회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 패턴과 공간의 성격과의 연계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한국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공간구성과 사회적 행위패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아파트의 평면형은 특정 행위패턴만을 유도하는 편중된, 획일화된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사회적 행위 패턴 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한 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의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를 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사회적 행위패턴에 대응하여 조절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는 대부분 거실, 식사공간, 부엌 및 통로공간의 구성, 그리고 이들 사이의 차단과 통합을 조절하는 벽체의 구성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단위주거 내부공간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오픈플랜을 도입하는 구체적 계획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개념의 구체적 주안점은 공동공간에서의 적절한 여유면적 확보, 통로공간에서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여지 확보, 벽체의 설치 및 제거를 감안한 평면구성기법 등이다. 이는 그 동안의 융통형 평면의 한계점을 보완한 현실적 개념으로서 실제 평면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 동안 사회학의 입장에서, 건축계획학의 입장에서 주거를 파악하여 상호 합일점을 찾는 연구는 매

우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본 연구는 주거 사회학의 이론적 개념을 구체적 공간계획에 적용하면서 다학제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주거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사회학, 건축학뿐만 아니라 가정학 및 가족학 등의 입장에서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후일의 더욱 확장되고 심도 있는 연구들을 기대하며, 본 논문에서의 시도가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최재필(1996). 한국 현대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 수도권 3LDK 아파트 주호 평면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 홍형욱(1994). 한국가족의 주거조절양상 -미시사회학적 접근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5(2).
- Barbey, Gilles. (1984). Wohnhaft - Essay ueber die innere Geschichte der Massenwohnung, Braunschweig/Wiesbaden.
- Bott, Helmut & Haas, Volker von. (1996). Verdichteter Wohnungsbau, Stuttgart.
- Faller, Peter. (1990). Der Wohngrundriss, Stuttgart.
- Grandjean, Etienne. (1976). Wohnen im Neubau, Bern.
- Haeusserman, Hartmut & Siebel, Walter. (1996). Soziologie des Wohnens, Muenchen.
- Hubelli, Ernst.
- _____. (1995). Neue Oeffentlichkeiten, neue Privatheiten, Werk, Bauen und Wohnen, Bern.
- _____. (1997). Das Bild des Einfachen und einfaches Bauen, Werk, Bauen und Wohnen, Bern.
- Lee, Nam-II. (1999). Der Einfluss des sozialen Wandels auf den Gemeinschaftsbereich im sued-koreanischen Massenwohnungsbau, dissertatin der RWTH Aachen, Aachen.
- Schaefers, Bernhard. (1986). Grundbegriffe der Soziologie, Opladen.
- Schmidt-Relenberg, Nobert. (1969). Soziologie und Staedtebau, Stuttgart/Bern.
- Silberman, Alfons. (1963). Vom Wohnen der Deutschen, Koeln.
- Simmons, Karl. (1978). Siedlungssoziologie - Wohnung, Gemeinde, Umwelt, Muenchen.
- Ullman, Gerhard. (1995). Innen- raeumen-Innenwelten, Deutsche Bauzeitung, Heft12.